

인수봉 가족 암벽등반기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최한석
031-428-7567 chs33@keeti.re.kr

벌써 일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다시금 6월...
작년 6월 26일은 내 작은 약속을 지키는 날이다.

○
○
○

소풍가기 전날 실례는 기분이랄까
아니 출발전에 선 육상선수 같은 기분이다
넌 날씨가 좋아야 하는데... 비가 오면 어쩌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길 바라는 마음뿐
이다

나에게는 내일 (6/26) 인수봉 암벽등반이 남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가족 인수봉 암벽등반을 한번 해 보자고 한
약속을...”

20년 만에 실천하는 날이기에 더 더욱 마음이 설
렌다. 나와 짐사람, 울 닷둥이 최소현(초등학교 5
년, 女) 셋만 인수봉 암벽등반에 참가하기로 한다.
그동안 소현이와 짐사람을 데리고 도봉산 선전암

으로, 북한산 알프스연습마위로 기초교육과 훈련
을 시켜 왔지만 잘 할 수 있을 리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일요일(6/26) 새벽 1시에 일어나 식구들 깨워 요
기를 하고 새벽공기를 가르며 우이동연락소에 도
조하니 5시 50분경 연락소 주인 네외가 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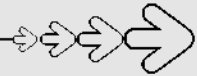
부탁한 도시락을 위해 밥집을 선치고 나온 거 같아
미안하다. 인수신장 야영장에 도착하니 야영한 식
구들이 반가이 맞이한다. 오전 7시 40분이다.

무지런히 움직여준 덕분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
전등반과 팀웍 우선순위를 주문하는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각조별 인원확인, 장비점검, 짐싣과 간식을
분배하고 힘찬 파이팅 으로 출발을 알린다.

오늘 인수봉 암벽등반에 도전하는 가족들이 자랑
스럽다. 물론 나오시는 소현이의 인수봉 암벽등반
이 기대된다.

총 33명 중 25명 인수등반에 나선다. 각 조별 대원
원성은...

1조 교육에 길 (11명), 2조 비둘기(7명), 3조 인수



B(7명), 지원조 (8명)

정상에서 만나자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각 출발 지로 떠난다.

인수봉 암장은 무려80여개의 등반 코스가 있다. 우리 1조는 초보자가 많은 관계로 고독에 길을 선택하였다. 암벽등반 시작시간이 오전 8시 30분이다. 늘 등반하던 인수봉이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



* 출발 전 파이팅 하는 모습

소현이와 집사람은 꼭 도전하고 싶었던 곳에 왔다고 하지만 잔뜩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초보자와 경험자를 중간 중간 섞어서 순서를 정한다.

호택이가 자일을 매고 선두 출발을 하고, 성룡이가 라스트를 본다.

소현이 차례다. 출발준비 완료! 출발!

소리를 외치며 암벽을 오른다. 나도 긴장되는데 본인은 어떻게?

아빠를 따라 오긴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어쩌나 오만가지 생각이 든다.

난이도가 높은 구간에선 발이 자꾸 밀리면서 불안

한 자새다. 하지만 침착하게 잘 적응을 한다. 창베 형과 성룡이가 소현이한테 용기를 불어 넣는다 침착하게 너무 잘 한다고... 집사람과 소현이도 서로를 격려하면서도 내심 경쟁심까지... 힘든 구간을 지나 이제부터는 고도 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까마득히 내려다보이는 골짜기이며 저 멀리 상계동 아파트단지가 눈 아래 펼쳐진다. 수직에 가까운 암벽을 올라 귀바위 밑을 지나 양쪽이 뺨 트인 영자 크랙에 도달하니 여러 코스에서 모이는 지점이라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좁은 공간인데 밑에서 마구 밀고 올라온다. 우리에게 군기반장 성룡이가 한마디 한다. 당신들 어디서 바위 배운 거야? 사고 나면 어떻게 할려고... 지금부터 내 통제에 따드라고 호통 친다. 뭔가 질서가 잡혀 가는 거 같다. 요즘 등반하는 젊은 친구들은 기다림이나 양보 같은 無言의 약속들이 자취를 감춘 거 같아 안타깝다. 내가 암벽을 시작(1977년도)할 때만해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성룡이 또 입을 연다. 우리는 한국알프스산악회 회원들인데 43년 동안 사고한번 없이 인수봉을 수 없이 등반 했고... 인수 내 슬라브 피톤은 이 형들이(창베형을 가리키며)

1968년도에 설치했는데 다들 알고 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창립43주년을 기념해 인수봉에 3코스도 나누어 25명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럼 저 꼬마도 회원? 대단하다고 격려해 준다. 어느덧 마지막 참기름바위를 올라 정상에 도착한다.

우리 1조가 정상에 도착하니 2조(비둘기길)는 벌써 도착해 우리를 반긴다. 아직 3조(인수B코스)가 도착 안했다. 진택이가 마중을 나간다. 인수B코스에는 많은 팀들이 등반을 하느라 시간이 좀 지체된 모양이다. 잠시 후 식구들이 올라온다.



• 정상에서 우리가족



• 정상에서 단체사진

인수봉정상(810m)에 나들 보어 낮은 점심을 먹으며 서로의 등반 에너지를 하나 하나 채운다. 오늘 인수봉을 등반한 전체 클라이머들 중에 소현이가 최연소 등반자다. 다른 팀들이 지나가면서 조금 전에 올라온 꼬마가 너나 하면서 다들 한마디씩.... 칭찬과 격려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모양이다. 건너편 백운대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무척 부러워 할 거라면서 정상에 오를 기쁨과 성취욕에 젖어든다. 기념 촬영을 마치고 하산을 시작한다.

호박이, 신백이 형제가 두 코스로 하강 작업을 견고 조보자와 경험자를 함께 하강시키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영한다. 경험자들이야 하강이 쉽고 낯

낯 풀나지만 조보자는 가장 부럽다. 10.5m 자일에 의지하여 내려간다는 것은 장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분과 말이 말을 듣지 않는다.

장풍으로부터 연이어 내려오는 회원들의 하강 모습은 넘 멋지다. 일사분란하게 하강을 끝내고 야영장으로 집결한다.

날씨도 우리들 도와줘 무사히 인수봉등반을 마무리하고 하산 길에 나서니 가물었던 산야를 적시기 시작한다. 인수봉을 뒤로 하고 우이봉으로 이동, 격려 차 오신 홍수 형(장림멤버)이 수고를 했다고 한산 사신다고....

소주, 맥주에 감자탕에 대화의 꽃을 피우며 뒤뚱이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나 좋아 다니던 산 생활을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는 작은 욕심을 이제야 이룰 수 있었기에 우리 가족과 산악회 식구들 모두와 기쁨을 함께한다.

모두에게 칭찬과 격려와 환희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 산행의 총평은 Goodoooood 이어~



* 아빠와 하강하는 소현

일 자 : 2005. 6. 25~26 (토~일)

장 소 : 인수봉 (북한산)

참가인원 : 총 33명 (암벽등반 25명)

